

「遊淸平山記」의 구조와 한문 교육 활용 방안

권혁진*

<目次>

I. 서론	III. 유산기의 구조를 활용한 한문 교육 방안
II. 「遊淸平山記」의 구조	IV.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遊淸平山記」를 통해 유산기의 구조를 도출하고, 그 구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遊淸平山記는 5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유산기의 일반적 구조인 준비-실행-총평을 세분화한 형태이다. 「遊淸平山記」는 시간적 구성과 공간적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5월 4일과 5일 이틀 사이의 산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자의 발걸음을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물과 자연경계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단락의 구성인 章法을 살펴보면 豫伏法과 提綱法, 問答法 등의 수사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경물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 곳과, 작자의 의론이 두드러진 곳도 보이며,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잘 살린 단락도 있다. 「遊淸平山記」는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해가면서 단락을 구성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였을 때 심도 있는 작품의 감상과 이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변화 중 7차 교육과정과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산문 분

* 강원대학교 강사 / hjh49@paran.com

야이다.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을 활용한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본고는 교과서에 실린 유산기를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한자의 쓰임과 어구 풀이, 문장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산문을 학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를 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유산기의 구조,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章法, 7차 교육과정

I. 서론

산을 유람하고 그 과정과 느낌을 기록한 유산기는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되었다. 먼저 유산기를 통해 산은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이며, 아름다운 경관으로 詩興의 원천이 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道體가 깃들인 곳으로 이를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이고, 한 지방의 상징적 존재이자 민족의 상징적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 이후 특정 시기와 특정 계열을 중심²⁾으로 분석하기도 했으며, 유산기에 나타난 士意識³⁾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한 지역의 특정한 산을 집중적으로 분석⁴⁾하기도 하였고, 유산기에 나타난 관광의식에 주목하기도 했다.⁵⁾

1) 이해순·정하영·호승희·김경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2) 안득용, 「17세기 후반 ~ 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農淵山水遊記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16세기 후반 영남 문인의 산수유기-芝山 曹好益 산수유기에 나타난 지연인식과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5, 민족어문학회, 2007.

3) 최석기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유람과 사의식」,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4) 정치영,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5) 육재용, 「산수유람록에 나타난 선인들의 관광의식 일고찰-금강산 유람록을

그리고 지역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⁶⁾이란 시각으로 유산기를 분석하기도 했다.

유산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준비-실행-총평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준비단계에서는 유람의 동기나 목적 및 동행인을 첫머리에 기술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유람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날짜별로 기록하며, 총평단계에서는 마지막에 유람을 총평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청평산기」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유산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확인해본다. 그리고 이를 한문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유산기 연구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한문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遊淸平山記」의 구조

「유청평산기」는 安錫徹(1718-1774)이 지은 작품이다.⁷⁾ 작품 말미에 己未年 天中節에 기록했다⁸⁾는 작가의 말에 따르면 1739년 5월 5일에 지어진 것이다.

1. 텍스트 분석

「유청평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작품 전체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번역문을 먼저 읽고, 원문을 나중에 읽는다.

중심으로-], 『관광연구』 25,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6) 권혁진, 「유산기를 활용한 지역교육」, 『한문고전연구』 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7) 安錫徹, 『雪橋集』, 「遊淸平山記」.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 4, 민창문화사, 1996, pp.455-459.에서 재인용.)

8) 安錫徹, 『雪橋集』, 「遊淸平山記」, “時己未天中節也”

1) 청평산은 春州에 있는데, 뛰어난 경치로써 이름이 났다. 息菴 李公(이자현)이 거쳐하고부터 산이 더욱 알려졌다. 뒤에 淸寒子(김시습)와 百淵翁(김창흡)같은 분이 때때로 와서 보곤 차마 떠나지 못하고, 정취를 깊이 느끼고 높이 노래해서 산과 골짜기를 빛냈다. 이에 청평산의 이름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다. (淸平山在春州, 以殊勝名. 自息菴李公居之, 而山逾聞. 後有淸寒子, 若百淵翁, 時時來見, 不忍去, 感慨高歌餘情, 耿山壑. 於是乎山之名殆人人誦之矣.)

2) 이 해 한 여름에 나는 춘천으로 가는 길에 병이 들었다. 그래서 소양강을 한 번 지나고자 하다가 돌아와 소양정에 이르렀다. 정자는 강에 임하여 환하게 터져있다. 멀리 보이는 산이 많은데, 동북쪽에 위엄 있는 산이 있었다. 물가에 있던 사람이 저것이 청평산이라 한다. 나는 눈이 열리고 심장이 뛰어서 술이 깨듯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是年中夏, 余之春州道病. 欲一過昭陽, 而歸及昭陽亭. 亭臨江豁然. 多遠山其東北而隱然者. 水人曰; “彼所謂淸平山也” 余則目開而心揚, 不覺醒然而疾散也.)

3-1) 드디어 북쪽으로 강을 건넜다. 강가에 牛首村이 있는데, 옛날 貂의 도읍이다. 마을은 크고 들은 멀리까지 펼쳐져 있어, 보리 이삭이 수십 리에 펼쳐져 있다. 우수촌을 지난 뒤 동쪽으로 泉田村을 지나니 역시 언덕과 들판이 펼쳐졌다. 들판을 지나 돌로 만든 棧道를 밟고 갔다. 잔도는 그림자를 강에 비치며 북쪽으로 벼랑을 끼고 돌며 내달리는데, 솟아난 돌이 오 리쯤 되며 瑾亞棧이라 한다. 잔도가 끝나자 강을 뒤로 하고 골짜기로 들어갔다.(遂北渡江. 江上牛首村, 古貂都也. 村大而野遠, 麥秀數十里. 既渡而東過泉田村, 亦原野. 野盡而踐石棧, 棧照江而北轉崖奔, 石聳可五里, 名瑾亞棧. 棧盡而背江入谷.)

3-2) 골짜기는 나무가 우거지고 좁으며 계곡 물은 흐르는 것이 얇았다. 물을 밟으며 구불구불 십 리 물길을 갔다. 갑자기 달라져 구름 낀 나무가 울창하니, 이곳이 山門이다. 걸을 때마다 불만하였다. 수백 보를 가서 九松臺에서 쉬었다. 대 아래에는 흰 돌은 넓고 평평하다. 물은 잔물결 일으키며 떨어지는 물을 받아 들인다. 폭포는 두 갈래로 떨어지는데 높이가 모두 세 길이다. 폭포 위에는 龍潭이 있고 용담 위에 벼랑이 있는데, 벼랑에는 또 두 갈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다. 폭포는 아래를 보는 것이 더욱 절경이다.(谷蒼狹, 谷水來濺濺, 踏水屈曲行十里水. 忽殊異雲木蔚然, 是爲山門. 步步生耳目. 數百步息九松臺. 臺下白石寬平,

水淪漣受瀑. 瀑則雙飛, 長皆三丈. 瀑上龍潭, 潭上崖, 崖又雙飛瀑. 瀑視下者更勝.)

3-3) 비스듬히 수백 보 올라가면 影池가 있다. 못의 깊이는 한 자 정도인데, 푸르고 깨끗하며 잔잔해서 사방으로 산 그림자가 보이는데, 가느다란 털도 모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고목이 둘러싸고 서 있는데, 赤木 네 그루는 바로 懶翁이 심었다고 한다.(迤上數百步有影池. 池深尺, 綠淨不擾, 四見山影, 纖毫可悉. 有古木繞立, 而赤木四乃懶翁所種云.)

3-4) 절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降仙閣의 작약이 막 피고 있었다. 信祐, 妙心 두 승려가 와서 알현하는데, 단아하고 수려하여 인상적이었다. 내가 꽃을 가리키며 空과 色에 대하여 물으니 대답을 하였다. 함께 佛殿을 보았다. 오래된 石鑑, 鐵杖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옹의 물건입니다.”라고 했다. (入寺食, 降仙閣芍藥方花. 有信祐妙心二上人來見, 端秀可念. 余指花而問空色, 有荅語. 因與觀佛殿. 有示古石鑑鐵杖曰; “此懶翁之物也”)

3-5) 마침내 信祐를 앞세우고 妙心을 뒤따르게 하여 見性庵으로 걸어 올라갔다. 암자의 주지 一和가 절하며 맞이하였다. 암자는 바위를 파고 외롭게 있었다. 멀리 노니는 새를 굽어보는데, 큰 노송나무에 막 바람이 불었다. 속세를 벗어나서 여기에서 십년 동안 책을 읽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遂前信祐而後妙心, 步上見性庵. 庵主一和拜迎. 庵剝巖而居忒孤. 廻俯視游鳥, 有大檜 方作風. 恨不脫世讀書十年於此.)

3-6) 信祐와 함께 息菴 옛 터를 찾아갔다. 바위 사이 작은 암자에 이르니, 암자 뒤 돌에 清平息庵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息庵의 터인데 뒷사람이 암자를 지은 것이다. 암자 옆에는 돌이 서있는데, 네 길 정도이며 맑고 푸른색을 띠고 있다. 위에는 松壇이 있는데 매우 높고도 빼어났다. 나는 한참 앉아 있었다. 서쪽으로 수 십 보를 가니 羅漢殿이다. 돌 위 세숫대야는 아직 마모되지 않았는데, 바로 식용이 판 것이라고 한다. 왼쪽으로 가면 골짜기 옆에 돌상자가 있다. 상자 속에 있는 瓦缶에 식용의 유해가 담겨져 있는데, 물이끼가 무성하였다. 아! 바야흐로 고려가 어지러웠을 때, 공은 임금의 외척임에도 초연하게 물들지 않고 여기에서 몸을 마쳤다. 여기에 남겨진 자취가 있으나, 세월은 아득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 바람은 서늘하고, 새가 홀로 운다. (獨

與信祐訪息菴舊墟，至石間一小庵，庵後石刻清平息庵字。盖息庵之墟，而後人構庵也。庵傍石立，四丈淡蒼色。上爲松壇，極廻絕。余爲坐良久。西數十步爲羅漢殿。而石上盥盆尙不盡磨，乃息翁所鑿云。左而礪涯有石函，函中瓦缶貯息翁遺骸，水苔翳然。嗚呼！方麗朝穢亂，公以戚里超然不點染，畢身於此。此其有遺蹟，而世顧遠已，不可詳矣。久坐風冷冷，有鳥單啼。）

3-7) 신우와 함께 작은 길을 따라 돌아왔다. 이따금 물과 돌을 보았으나 선동(仙洞)을 볼 수 없었다. 西川을 보니 냇가에 松壇이 있다. 단에 올라 산을 보니 산에서 가장 높은 것은 세 봉우리였다. 쉬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각은 듯 떨어질 듯 하며 험준한 것은 ‘香爐峰’이다. 떨어질 듯이 쌓인 돌무더기가 여름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은 ‘慶雲峰’이다. 우뚝 솟아있으면서 연꽃의 꽃받침이 펼쳐지려고 하는 것은 ‘芙蓉峰’이다. 봉우리들은 모두 푸르고 흰 돌이며, 나무들은 단풍나무와 삼나무, 노송나무, 잣나무 등이다. 나무는 곳곳이 서 있고, 돌은 위태로워 떨어질 듯 하며, 햇빛은 반짝반짝 빛나니 즐겁만하였다. (與信祐遵小徑歸。往往見水石，而獨仙洞不得見。見西川，川上松壇。登壇而見山。山最三峯。其磅礴刻落而峯然者曰香爐。其碑凡磊砢如夏雲之騰者曰慶雲。其嵯嗒歛歛如蓮萼將展者曰芙蓉峰。峰皆蒼白石，其木楓杉栝栢。木竦而石峯方落，日爭映發，可喜已。)

3-8) 저녁에 돌아오다가 金富軾이 지은 眞樂碑를 읽었는데, 비에서 두 자가 떨어져나갔다. 어두워서 읽을 수 없었다.(暮歸讀金富軾所撰眞樂碑，又斷碑二字，晦不可讀。)

3-9) 禪堂에서 자는데, 초승달이 누운 곳을 비추었다. 그때 노스님의 말을 들었는데, 淵翁을 언급하며 그치지 않았다. 대나무 갓과 갈포를 입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는 깨끗한 풍채를 생각할 수 있었다. 또 이백 년 전에 긴 수염을 기른 두타가 이 절에 왔다갔다 하였던. 내가 “이 사람은 淸寒子이다” 모든 나무에 서리가 맺히고 온 산에 눈이 쌓인 것들로 비유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천 년 뒤에 내가 평소에 품은 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니 한스러워 눈물이 떨어지려고 한다.

대개 梅月翁은 중년에 谷雲에 거처했고, 만년에는 雪岳에 거처했다. 淵翁은 중년에 설악에서 살았고, 만년에는 곡운에서 거처했다. 이 산은 곡운과 설악의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두 분이 이 산에서 놀며 즐겼던 것이다. (宿禪堂，細月照

臥. 時聞老釋言, 言及淵翁, 瀏瀏不能已. 竹笠葛袍一節, 灑然其風標可想也. 又言二百年前, 長髯頭陀來往是寺云. 余曰; “此清寒子也” 因諷其萬樹凝霜, 千山積雪云云. 冀千載之下知余之素志之語, 恨然欲涕下. 蓋梅月翁中年居谷雲, 晚居雪嶽. 淵翁中年居雪嶽, 晚居谷雲. 是山也在谷雲雪嶽之間. 故二公之游喜於是山耳.)

3-10) 새벽종이 울리자 信祐가 촛불을 밝혔다. 내가 시를 지어 주었다. 절을 나와 신우와 함께 영지에 앉았다. 연못은 흰 빛을 발하고, 어둠은 나무에 드리워져 있으니, 특별히 맑으면서도 멀고 아득하여 끝을 알 수 없는 정취가 났다. 내가 手磬을 한 번 치니 산이 모두 울렸다. 이로부터 산에서 나오려하다가 서성거리며 돌아보니 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다. (曉鍾信祐明燭, 余題詩留贈. 出寺獨與信祐坐影池. 池光生白, 而夜色垂木, 別有澄然凝逸之趣. 余手磬一敲, 山皆響. 自此將出山, 彷徨顧視, 殆不能爲心.)

4) 억지로 용담과 구송대를 벗어나니 일화스님이 쫓아 와서 배웅했다. 나는 또 앉아서 수경을 두드리며 탄식하여 말하길, “여기에서 노닐던 자 중에 뒷사람이 감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세 군자가 있었는데 나는 돌아보건대 미치지 못합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고, 홀로 그 자취를 어루만지며 홀로 바람 부는 소나무와 흐르는 물 사이에서 잊지 못하여 괴로워하니 슬픔니다. 내가 연옹보다 늦고 연옹은 매월옹보다 늦으며, 매월옹은 식옹보다 늦으니 아득히 때가 같지 않아, 경운봉 위에서 서로 뜻이 맞아 웃고 즐기며 이야기 할 수 없으니 한스럽습니다. 뒷사람 또한 이 한스러움을 같이 할 자가 있겠습니까?”

노스님이 말하길 “이는 곧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청평이 명산입니까? 여러 봉우리가 돌로 이루어져 있고 木石이 빛나는 것이 아름다운 옥에 버금가는 자주빛을 얻은 것 같고, 높은 절벽과 작은 강이 절 주변 몇 걸음 안에 있고, 牛首의 들이 앞에 있고, 소양의 정자와 마주하고 있으니, 또한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은 멀고 가까움이 있어 뛰어난 것을 모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하물며 시간은 멀고 가까움이 있어 人事가 함께 하지 못함이 있으니 다시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아! 산을 보고 싶으면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싶으면 물을 보았습니다. 옛사람이 이와 같았고, 지금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뒤에 오는 자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무릇 이와 같으면 됐지, 오히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군요”라고 말하였다. 구송대로부터 골짜기에 있는 돌 가운데로 옮겨 앉았다가, 한참 지난 후 일어났다. (強而出龍潭九松臺, 一和追送. 余又坐敲磬已, 而歎曰; “游於此者, 在後人當有誰耶? 吾不得而知矣. 在古有三君子, 而吾顧不及矣. 獨來而獨去, 獨撫其蹻, 獨得耿耿於風松流水之間. 悲夫! 余晚於淵翁, 淵翁晚於梅月翁, 梅月翁晚於息翁, 漠然不同時 不得於慶雲峰上逢迎借言笑可恨. 後之人亦有同此恨者耶?” 有老釋曰; “是則然矣. 抑奈何清平是名山也. 數峰确然, 木石閃映, 若得瑾亞之紫, 崖大江縮在山門數步, 前之以牛首之野, 對之以昭陽之亭, 則不亦善之善者乎. 顧乃地而有遠近, 不得聚英會秀如此. 況於時之有遠近, 而人事之不偕者, 復何異哉. 噫! 見山則見山, 見水則見水, 古人而如是, 今人而如是, 後之來者, 亦如是夫. 如是則可矣. 尚可何說耶?” 余曰: “然” 自九松臺, 移坐礪石中, 久之乃起.)

5) 때는 己未年 天中節이다.(時己未天中節也.)

2. 篇法

명나라 때의 高琦는 『文章一貫』의 篇法에서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장에서의 변화, 연계성 있는 구성과 내용의 치밀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장 구성의 틀을 起·承·鋪·敍·過·結로 구분하고 있다.⁹⁾ 정민은 문장에는 한 편을 통괄하는 원리인 편법이 있으며, 이 편법이 문장 전체의 구성을 말한다고 보았다. 즉 주제를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글의 열개를 짜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편법은 기승전합의 골격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¹⁰⁾ 송혁기는 말하고자 하는 뜻을 어떤 제재에 담아서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성 단계의 수사법이라고 보았다.¹¹⁾ 강명관은 허균의

9) 高琦, 『문장일관』, p.18, “起貴明切 如人之有眉目, 承貴疏通 如人之有咽喉, 鋪貴詳悉 如人之有心胸, 敍貴重實 如人之有腹臟, 過貴轉折 如人之有腰脊, 結貴緊切 如人之有足” (이규운, 「高琦의 『文章一貫』 考 -篇章句字法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3,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9. pp.401-434.에서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10) 정민,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pp.109-134. 참조.

문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편장구자를 작품 전체·패러그래프(단락)·센텐스·어휘로 설명하고 있다.¹²⁾ 그 중 편법은 한 편의 작품 전체를 통어하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언어의 사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작가의 의도,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품의 전체적 차원에서 통어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³⁾ 위에서 살펴본 여러 논의들은 바로 글 전체의 구성이 篇法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 전체의 구성인 篇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유청평산기」는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었다. 각 단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1단락은 청평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다. 청평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유명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자는 특히 뛰어난 인물들로 인하여 청평산이 유명해졌음을 밝히고 있다.

2단락은 청평산을 유람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청평산을 처음 봤을 때의 작자의 흥분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단락은 청평산을 유람하기 위해 춘천을 출발한 시점부터 청평사 산문을 벗어나기까지의 일정이다. 본격적인 유람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10개의 소단락으로 구분된다. 1소단락은 소양강을 건너면서부터 청평산 계곡 골짜기 입구까지의 여정이다. 중간에 牛首村과 泉田村을 지나고 棧道를 통해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정을 묘사하고 있다. 2소단락부터는 본격적인 청평산 유람이 시작된다. 九松臺와 그 아래에 있는 폭포, 그리고 용담을 답사하였다. 3소단락은 影池와 그 주변에 있는 赤木 네 그루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4소단락에서 작자는 절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였다. 降仙閣에 피어있는 작약을 보고 두 스님에게 空과 色에 대하여 문답하였고, 佛殿에 있는 유물을 보았다. 5소단락에서 작자는 見性庵으로

11)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pp.238-269. 참조.
 12)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pp.105-121. 참조.
 13) 편법은 장법과 구분하기 어려우며 장법에 편법이 포함된다고 주를 달고 있다.

가서 주지 一和를 만났다. 작자는 여기서 속세를 벗어나서 여기에서 십년 동안 책을 읽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6소단락은 息菴 옛 터를 찾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다. 食菴 옛 터 위에 있는 松壇과 羅漢殿, 돌 위 세숫대야, 골짜기 옆에 돌상자를 돌아보았다. 이자현에 대한 회고가 돋보인다. 7소단락은 신우와 함께 西川으로 내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서천의 송단에서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자세히 묘사하였다. 8소단락에서 작자는 돌아오다가 金富軾이 지은 眞樂碑를 읽었다. 9소단락에서 작자는 禪堂에서 자면서 노스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淵翁과 淸寒子에 대하여 말하며, 두 사람이 청평산에서 노닐 까닭을 밝혔다. 10소단락에서 작자는 새벽에 절을 나와 영지로 향하였는데, 산에서 나오려하다가 미련이 남아 주저하는 심회를 그리고 있다.

4단락은 작자가 용담과 구송대에서 벗어나니 일화스님이 배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일화 스님의 말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단락은 유산기를 지은 날짜를 기록하였다.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유청평산기」는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락: 청평산에 대한 개관

2단락: 산행 동기

3단락: 산행 과정(청평산 입구까지의 여정→구성대, 폭포→영지→청평사 도착
→견성암→식암→서천→진락비→선당 숙박→영지)

4단락: 스님과의 대화를 통한 감회 피력

5단락: 날짜 기록

「유청평산기」의 구조는 유산기의 일반적 구조인 준비-실행-총평을 세분화한 형태이다. 유람의 대상인 산에 대한 개관인 1단락과,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부분으로 유람의 총평 부분을 대신하는 4단락은 「유청평산기」의 구조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내용의 전개 방식을 따라 「유청평산기」를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 작문 교재에서 바라보는 글의 구성에 대한 견해를 참고하는 것도 「유청평산기」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대학교 글쓰기 교재 중 『글쓰기의 기술』을 살펴보면 구성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다. 전개적 구성과 종합적 구성으로 이분한 뒤, 전개적 구성은 다시 (1)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구성 (2) 공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 (3) 단계적 구성: 3단, 4단, 5단 구성 (4) 포괄식 구성: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구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적 구성은 (5) 열거식 구성 (6) 점층식 구성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⁴⁾

「유청평산기」는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구성과 공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 형태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2단락에서 작자는 ‘이 해 한 여름에 나는 춘천으로 가는 길에’ 청평산을 유람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5단락에서 “때는 己未年 天中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월 4일이다. 3-1)에서 “보리 이삭이 수십 리에 펼쳐져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음력 오월의 시골 풍경을 보여준다. 3-4)에서 “절에 들어가 밥을 먹었는데, 降仙閣의 작약이 막 피고 있었다”는 표현에서 춘천에서 출발하여 점심 무렵에 절에 도착하였고, 계절은 작약이 피는 봄과 여름 중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3-8)에서 작자는 저녁 무렵에 절로 돌아오다가 眞樂碑를 보게 되었는데, 어두워서 읽을 수 없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산행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기까지 하루가 소요됐음을 알려준다. 3-9)는 하룻밤 숙박하게 된 것과, 초승달을 등장시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3-10)은 5월 5일의 기록이다. 작자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의 영지 주변을 묘사한 “연못은 흰 빛을 발하고, 어둠은 나무에 드리워져 있으니, 특별히 맑으면서도 멀고 아득하여 끝을 알 수 없는 정취가 났다”¹⁵⁾는 문장은 새벽의 모습을 미세

14) 건국대학교 글쓰기연구회, 『글쓰기의 기술』, 파미르, 2008, pp.39-63. 참조.

15) 安錫徹, 『雪橋集』, 「遊淸平山記」, “池光生白, 而夜色垂木, 別有澄然凝逸之趣”

하게 포착하고 있다. 5단락에서는 5월 5일에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5월 4일과 5일 이틀 사이의 산행을 기록한 유산기로 대부분의 유람은 5월 4일에 이루어졌다.

「유청평산기」는 작자의 발걸음을 따라 나타나는 유적과 풍경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춘천에서부터 시작한 여정은 청평산 입구의 구성대, 폭포, 영지, 청평사, 견성암, 식암, 서천, 진락비, 선당, 영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변의 묘사와 느낌을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작품을 분석해본 결과 「유청평산기」는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단락은 10개의 소단락으로 짜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구성과 공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구조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章法

장법이란 각 단락 단위의 전개방법을 말한다. 다만 큰 의미단위의 章과, 형식단락 단위의 章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章에서 체재 선택 및 배치, 핵심 관건의 부각, 단락의 전환 및 조응, 서술방식의 변화운용 등¹⁶⁾이 이루어진다. 곧 장법이란 각 단락의 구성과 안배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유청평산기」에서 각각의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章法을 살펴 보도록 한다.

1) 단락에서는 豫伏法이 쓰였다. 예복법은 서두에 한두 마디 말을 미리 암시해 둔 뒤, 중간과 결말에서 이것과 조응시킴으로써 맥락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다. 청평산이 뛰어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뛰어난 인물들이 거처하면서부터라고 한 뒤, 息菴과 淸寒子와 百淵翁을 예로 들었다. 이렇게 이름만 들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따를 것을 암시한다. 한편 全篇의 대의를 글

16) 송혁기, 앞의 책.

의 모두에 배치하고, 이 뜻으로 일관하여 전개하는 법을 提綱法이라고 하는데, 1)단락에 적용되었다. 작품 전체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만, 작자가 유람기간 동안 계속 마음속에 두고 그리워하며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쉽게 청평산을 떠나지 못한 것은 세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 1)에서 청평산을 경치와 인물 때문에 유명해졌음을 밝혔는데, 이것은 이후 단락에서 지속적으로 경치와 인물이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유청평산기」는 청평산의 경치와 이자현, 김시습, 김창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소단락에서도 예복법이 쓰였다. 이 단락에서 꽃을 가리키며 空과 色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4)에서 공과 색을 활용한 문제 해결이 나온다.

3-6)소단락은 서술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먼저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식암 주변의 글자와 암자 옆에는 돌, 그 위에 있는 松壇, 羅漢殿, 돌 위 세숫대야, 골짜기 옆에 돌상자에 대하여 담담히 그리고 있다. 그런 다음 이자현에 대한 작자의 감회를 적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바람과 새소리에 대하여 묘사함으로써 감정이 너무 방만하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서사와 서정과 묘사가 뒤섞여서 절묘하게 혼합된 단락인 것이다.

3-7)소단락은 주변 경물에 대한 묘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깎은 듯 떨어질 듯 하며 힘준한 것은 ‘香爐峰’이다. 떨어질 듯이 쌓인 돌무더기가 여름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은 ‘慶雲峰’이다. 우뚝 솟아있으면서 연꽃의 꽃받침이 펼쳐지려고 하는 것은 ‘芙蓉峰’이다. 봉우리들은 모두 푸르고 흰 돌이며, 나무들은 단풍나무와 삼나무, 노송나무, 잣나무 등이다. 나무는 꽃꽂이 서 있고, 돌은 위태로워 떨어질 듯 하며, 햇빛은 반짝반짝 빛나니 즐길만하였다.”¹⁷⁾ 작품의 대부분이 보고 들은 것을 담담히 기록하였다면, 이 단락에서는 청평산을 구성하고 있는 세 봉우리를 자세하게 관찰한 후, 섬세

하게 묘사를 하여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바위와 다양한 나무로 이루어진 산이 햇빛에 반짝이며 빛나는 모습을 형용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3-9)에서는 작자의 의론이 두드러진다. 禪堂에서 스님과 淵翁과 淸寒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자는 이 두 사람이 청평산에서 노닐 이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곧 梅月翁은 중년에 谷雲에 거처했고, 만년에는 雪岳에 거처했으며, 淵翁은 중년에 설악에서 살았고, 만년에는 곡운에서 거처했는데, 청평산은 곡운과 설악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이 산에서 놀며 즐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3-10)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난 단락이다. 새벽 종이 울렸다는 것을 통해 이른 새벽임을 알려주고, 手磬을 한 번 치니 산이 모두 울렸다는 표현은 주위가 아직도 잠든 새벽의 고요한 산속임을 보여준다. 영지 주변을 묘사한 “연못은 흰 빛을 발하고, 어둠은 나무에 드리워져 있으니, 특별히 맑으면서도 멀고 아득하여 끝을 알 수 없는 정취가 났다”¹⁷⁾는 표현은 새벽의 영지 주변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4)단락은 문답을 설정하여 논란의 과정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問難法 혹은 問答法을 주요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작자는 세 군자보다 못함과, 때가 같지 않아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한탄하며, 스님에게 자신과 같이 한스럽게 여길 자가 있겠는가를 묻는다. 물음에 대해 스님은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듯이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세 군자를 만나볼 수 없고, 단지 있는 그대로를 즐길 것을 말하며 고민을 풀어준다. 작자의 질문에 대한 스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이 단락은 主客法

17) 安錫徽, 『雪橋集』, 「遊清平山記」, “與信祐遵小徑歸. 往往見水石, 而獨仙洞不得見. 見西川, 川上松壇. 登壇而見山. 山最三峯. 其磅礴刻落而峯然者曰香爐. 其碑凡磊砢如夏雲之騰者曰慶雲. 其嵯峨歎歎如蓮萼將展者曰芙蓉峰. 峰皆蒼白石, 其木楓杉栝栢. 木竦而石率方落, 日爭映發, 可喜已.”

18) 安錫徽, 『雪橋集』, 「遊清平山記」, “池光生白, 而夜色垂木, 別有澄然凝逸之趣.”

이 적용되기도 한다. 주객법은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객은 산문에 묘사된 대상을 말하고, 主는 작가의 주관적 사유를 말한다. 혹은 묘사 대상 가운데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주와 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환경묘사를 객, 인물 묘사를 주라 하기도 한다. 부차적 인물을 객, 주요 인물을 주라고 하기도 한다.¹⁹⁾ 여기서는 작자인 주인공이 객이 되고 스님이 주가 된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3-4)에서 말하던 공과 색이 이 단락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작자가 시간이라는 色에 얽매여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스님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받지 않는 空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일깨워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청평산기」는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해가면서 단락을 구성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유청평산기」를 좀 더 심도 있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Ⅲ. 유산기의 구조를 활용한 한문 교육 방안

개정된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과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산문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산문을 읽기와 이해의 두 중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7차 교육과정과 다른 부분은 중영역인 이해에서 명시한 ‘산문의 이해와 감상’이란 내용 요소이다. [I-이해-(4)]에서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²⁰⁾고 명시하고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속에서 사용된 단어나 문장 또는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 등 글의 내용을 그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점적인 의미, 곧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지금까지 한문교육에서 간과하였던 부

19) 정우봉, 「한문수사학 연구의 한 방법」,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2004, pp.62-84.

2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p.30.

분인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을 활용한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를 강조한 것이다.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글의 구조에 통하여 작품을 바라볼 때 ‘산문의 이해와 감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 중 한문 산문의 구조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글의 구조를 통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한문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유청평산기」를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면 위에서 분석한 유산기의 구조를 활용하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유산기를 살펴보고, 교과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유산기가 실려 있는 것은 한 편이며, 그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① 午到鐵甕東門，二士憩其樓，數童從焉。持酒待我，同遊之尹生·明生也。敘吾行色，謝彼勤意，並轡而入。

② 香山之行，固草草，不能窮搜極探。然其名菴勝區，如佛智見佛賓鉢諸寺，皆一歷之，獨恨路廢，不得登毘盧香龕，一望遼海而來耳。凡遊以趣爲主，行不計日，遇佳卽止，携知己友，尋會心處。²¹⁾

① 정오에 철옹 동문에 도착하니 두 선비가 그 누각에서 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따라와 있었다. 술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놀던 윤생과 명생이다. 나의 유람을 말하며 저들의 은근한 뜻에 감사하고, 고삐를 나란히 하고 들어갔다.

② 묘향산 길이 본래 거칠어 깊은 곳까지 다 찾아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름난 암자와 아름다운 곳인 불지사, 견불사, 빈발사와 같은 사찰을 모두 돌아보았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길이 막혀서 비로봉, 향로봉에 올라 한 번 발해를 보

21) 김경수 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p.190.

지 못한 것이다. 무릇 유람은 흥취를 으뜸으로 하는데, 유람하는데 날짜에 구애 없이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멈추고, 나를 알아주는 벗을 대동하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야 한다.

위 작품은 박제가의 「묘향산소기」 중 일부이다. 교과서는 본문의 이해에서, 전체의 글은 9월 13일 동으로 묘향산 길을 떠난다로 시작하여, 19일 철옹성으로 향해 정오에 도착한 7일간의 일정을 적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박제는 나귀에 올라 묘향산의 경치를 흠뻑 즐겼다고 적고 있을 뿐이다. 이것 이외에 이 작품의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묘향산소기」 전편에서 본문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알아야 한다. 「묘향산소기」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유람을 기록한 글이며, 본문은 그 중 마지막 날인 19일에 대한 기록이다. 유람기의 구조를 ‘산에 대한 개관, 산행 동기, 산행 과정, 자신의 심정 피력, 날짜 기록’의 구조로 보든, 유람의 동기나 목적 및 동행인을 첫머리에 기술, 유람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날짜별로 기록, 마지막에 유람을 총평하는 준비-실행-총평이라고 보든지 간에 작품의 구조 틀을 동원하여 위 작품을 분석한다면, 본문에서 ①은 유람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며 ②는 총평 부분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 ②에서 지은이는 묘향산 유람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유람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서, 글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①과 ②가 「묘향산소기」작품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교과서에 실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篇法과 章法 등을 고찰해야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본문이 워낙 짧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작품 전체의 구성에서 교과서에 실린 본문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도외시한 채 한자의 쓰임과 어구 풀이, 문장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을 활용한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는 요

원할 것이다. 앞으로 한문 산문은 유산기의 구조를 통해 유산기를 분석한 것과 같이, 글의 구조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유청평산기」를 통해 유산기의 구조를 도출하고, 그 구조를 산문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유청평산기」는 5단락으로 구성되었다. 1단락은 청평산에 대한 개관이며, 2단락은 산행 동기, 3단락은 산행 과정, 4단락은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심정 피력, 5단락은 날짜의 기록이다. 그 중 3단락은 10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유산기의 일반적 구조인 준비-실행-총평을 세분화한 형태이다. 현대 작문 교재에서 바라보는 글의 구성에 대한 견해를 참고하면, 「유청평산기」는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구성과 공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 형태를 띠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5월 4일과 5일 이틀 사이의 산행을 기록한 유산기로, 대부분의 유람은 5월 4일에 이루어졌다. 「유청평산기」는 작자의 발걸음을 따라 충실하게 유적과 경물을 기록하고 있다. 춘천에서부터 시작한 여정은 청평산 입구의 구성대, 폭포, 영지, 청평사, 견성암, 식암, 서천, 진락비, 선당, 영지로 계속 장소가 이동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변의 묘사와 느낌을 기록하고 있다.

단락의 구성인 章法을 살펴보면 다양한 수사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단락에서는 豫伏法과 提綱法이 쓰였다. 3-4)에서도 예복법이 쓰였다. 3-6)소단락은 서술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서사와 서정과 묘사가 절묘하게 혼합되었다. 3-7)은 주변 경물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소단락으로 묘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3-9)에서는 작자의 의론이 두드러진다. 3-10)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잘 살린 단락이다. 4)단

락은 問答法을 주요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고 主客法이 적용되었다. 「유청평산기」는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해가면서 단락을 구성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였을 때 심도 있는 작품의 감상과 이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산문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한문교육에서 간과하였던 부분인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을 활용한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과서에 실린 유산기를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이해해보았다. 이를 통해 한자의 쓰임과 어구 풀이, 문장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을 활용하였을 때, 글의 내용과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參考 文獻>

高琦, 『文章一貫』, 국립중앙도서관장본.

安錫徹, 『雪橋集』,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 4, 민창문화사, 1996.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건국대학교 글쓰기연구회, 『글쓰기의 기술』, 파미르, 2008.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권혁진, 「유산기를 활용한 지역교육」, 『한문고전연구』 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김경수 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農淵山水遊記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 「16세기 후반 영남 문인의 산수유기-芝山 曹好益 산수유기에 나타난 지연인식과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5, 민족어문학회, 2007.

육재용, 「산수유람록에 나타난 선인들의 관광의식 일고찰-금강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5,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이규운, 「高琦의 『文章一貫』 考 -篇章句字法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3,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9.

이혜순·정하영·호승희·김경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정 민,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정우봉, 「한문수사학 연구의 한 방법」,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2004.

정치영,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최석기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유람과 사의식」,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Youcheongpyeongsangi(遊清平山記)」
and Utilization in Chinese Character Education / Kwon Hyuk Jin**

This manuscript identifies the structure of Yousangi from 「Youcheongpyeongsangi(遊清平山記)」 and utilizing it in the class of school.

「Youcheongpyeongsangi」 is constructed with 5 paragraphs. This structure is the form subdividing the general structure of Yousangi that has preparation-practice-general review. 「Youcheongpyeongsangi」 is the form of spatial and temporal composition. The work with temporal composition deals with the hiking in two days of the May 4, 5th. According to author's itinerary, the relics and natural landscape are faithfully recorded in the work.

Rhetorical elements are applied in the paragraph structure. The rhetoric of 豫伏法, 提綱法, 問答法 is used. Some paragraphs put emphasis on the descriptions of the scenery of the season or author's opinion. Other paragraphs show aural and visual images well. 「Youcheongpyeongsangi」 has paragraphs with different types of rhetoric. Therefore, it makes an in-depth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the work to understand the work through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work.

One of the differences between previous Educational Curriculum and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is about prose. This manuscript analyze Yousangi in textbook through structure responding to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emphasizing the understanding of contents and themes utilizing the structure and method of the text developing. From this, This manuscript identifies that it must be sublated to learn, focusing on Chinese

* Lecturer of Kangwon Univ. / hjh49@paran.com

characters in use, phrase explanation, form of the sentence and it is more efficient to understand contents and themes, utilizing the structures and methods of the text developing at appreciating works.

【Key words】 the structure of Yousangi, temporal composition, spatial composition, rhetoric,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투고일 : 5월 7일, 심사일 : 5월 23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